

“사회과학출판 대중화에 힘 쏟겠다”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제5대 회장 김영종씨

1986년 6월 '사상과 출판의 자유'라는 기치 아래 사회과학 출판인들은 물론 관련 필자와 역자들이 모여 의욕적으로 출범했던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가 올해들어 주목할 만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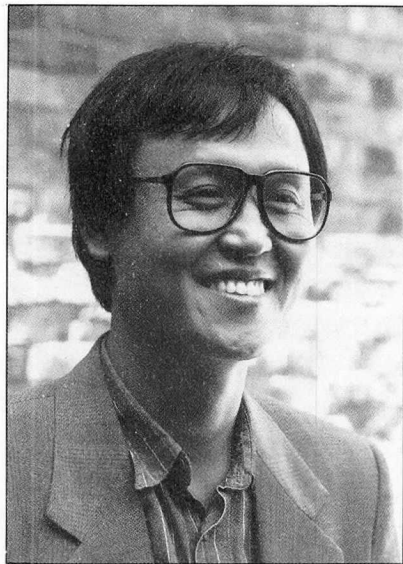
그동안 외국인 저작권보호 반대운동과 출판인 탄압 저지운동 등 대외적인 활동과 함께 대학가와 일부 전문인들 사이에서만 조심스레 읽혀지던 서적들을 '양성화'하는 데도 큰 몫을 담당했던 사회과학 출판계가 자신들의 입지를 보다 넓히고 급변하는 국내의 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진로모색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

이러한 요구를 반영, 지난 9월 14일 제5대째 한출협 회장으로 선출된 김영종씨(36, 도서출판 사계절 대표)는, 우선 '사회과학출판의 대중화'라는 말로 90년대 협의회의 방향을 설명한다.

“80년대 한출협의 활동을 총평한다면 사상출판자유 신장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것과 일종의 '민주언론'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90년대를 맞아 저희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이제까지 형성된 기반을 바탕으로 민족문화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민족문화의 정립과 사회과학출판의 대중화는 필연적인 연결고리로 맞물려야 한다는 것이 김회장의 생각이다.

이러한 '노선변화'의 원인으로 그는 소련과 동구권 등 최근 사회주의권의 개방주의적 변화 추세와 국내 독자들의 취향 변화를 꼽는다. 즉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독서취향이 감각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 이제 대중들은 추상적인



이념보다는 생활상의 '구체성'에 더 설득력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회과학출판의 내용도 이러한 변화와 요구에 맞게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역을 확보하고 그 내용도 대중의 수준에 맞게 '저급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저급화란 부정적 의미에서의 질적 저하가 아니라 이해능력을 고려한 '대중화' 정도로 생각되길 바랍니다.”

최근 사회과학출판계의 주목할 만한 변화로 지적되는 생활신서나 청소년 도서, 중국고전물 등의 출간은 바로 이러한 영역의 다변화와 내용의 대중화 추세를 반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단순한 '좌익 상업주의'라는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 김회장은, '자주민주통일 이념확산'을 위한 나름의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요즘의 서점가를 휩쓸고 있는 책을 보면 약육강식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패권주의나 거기에서 도태된 허무주의적 인생관을 미화시키는 패배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대중화는 '공동체적 삶'을 위한 것입니다.”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지양하고 건전한 가치관에 기초한 건전한 경쟁을 의미하는 '공존의 원칙'에 입각한다는 것이 이들 사회과학출판계의 대중화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이자 '민족민주출판'의 기준이 된다. 이념과 상업성의 공존문제에 대해, 이제 자정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김회장의 자평도 바로 이러한 기준이 사회과학출판계에 있어 기능하는 일종의 '감시망' 역할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그 방향만 올바른 목표에 닿아 있다면, 상업성은 오히려 물질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90년대를 맞은 사회과학출판의 진로모색이라는 점에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돌베개, 동녘, 실천문학, 풀빛, 거름, 이론과 실천, 역사비평 등 80여개 출판사 2백여회원이 가입돼 있는 한출협은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경직성을 탈피, 5개의 지역위원회를 신설하여 자유로운 지역활동의 영역을 넓히는 한편, 회원자격을 완화하여 회원확대사업에 주력하는 등 나름의 새로운 분위기 조성

에 힘쓰고 있다.

또한 출판인학교 설립, 남북출판교류와 국제출판교류의 성사 등 김회장이 내건 '공약'의 현실화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계획인데, 이밖에도 한출협을 사회과학출판계의 '만남의 장소'로 만들으로써 대외연대의 발판으로 삼아갈 것이라 밝힌다.

열악한 출판환경과 아직도 온전한 응집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내부갈등이 장애가 되고 있지만, 보다 새로운 질적 비약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고 말하는 김회장은, 금년이 바로 그 성과를 좌우하는 '실험대'이기 때문에 더욱 책임이 무겁다고 한다.

광주출신으로 “제대로 졸업한 대학이 없다”고 말하는 김회장은, 80년대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2번의 옥고를 치르면서 그후의 진로를 예견한 한 인물. 80년 일월서각 영업부 직원으로 출발하여 출판계와 인연을 맺게 된 이래 82년 지금의 사계절을 인수, 출판운동에 전력투구하게 된 동기에 대해 그는 “그저 출판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명감이 생겼다”고만 말한다.

홍명희의 「임격정」으로 유명한 그의 출판사는 최근 베스트셀러로 부상한 「이야기 파라독스」로 사회과학출판사의 새 출구 모색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듯.

— 정소연 기자

UFO에서 보낸 편지가 지금 서점에!

지구인에게 띄우는 남성 우주인과 여성 우주인의 지혜

친구아란으로부터의 편지

정 범 역음
신국판 202면 값 3,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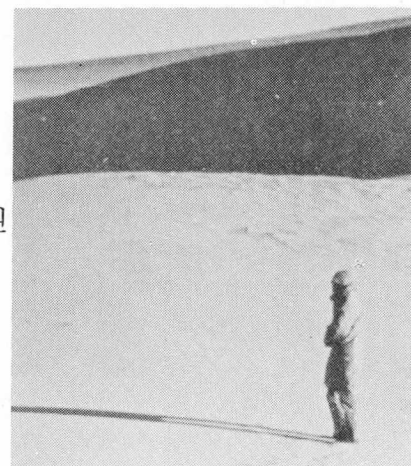
지구의 종말론에 대한 대반격! 21세기는 사랑과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

- 이 책은 한 수행자가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온 남성 우주인 아란으로부터 1990년 3월부터 5월까지 직접 받은 메시지입니다.
- 이 책으로써 요한계시록, 미륵의 시대, 노스트라다무스, 정감록 등을 우주적인 시각으로 이해하십시오.
- 우주문화를 강의하는 여성 우주인 콘넛샤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 최근 일본에서는 우주인들과의 교신에 의하여 우주선을 불러들여 T·V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1990년 1월6일 일본방송 6번 채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720-1199



나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진실 이외에는 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